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2-39호 / 6월 10일

중·아세안 고위관료회담, FTA 본격 추진키로

1. 중국-아세안 고위관료회담 개최

- 지난 5월 14일 중국과 아세안은 북경에서 제3차 중국·아세안 고위관료 회담을 갖고 향후 10년 내에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데 의견을 일치함.
 - 이번 회의는 작년 11월 주룽지(朱鎔基) 총리가 아세안 지도자에게 양 지역 간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제안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고위급 회담임.
- 룡용투(龍永圖) 대외경제무역부 부부장은 중국-아세안자유무역지대 설립이 양 지역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, 쌍방이 이미 자원, 상품 및 경제구조상의 상호보완성으로 FTA 설립의 양호한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발언함.
 - 또한 쌍방간 FTA는 17억의 소비자, 2조 달러의 GDP, 1.2조 달러의 무역액 규모의 단일시장을 의미하는바 이는 개도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라고 강조함.
 - 베트남 무역부의 黃積福 부장비서는 쌍방간 FTA 설립이 상호간의 무역

과 투자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을 증가시키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힘.

- 한편, 중국과 아세안은 고위관료회담에 이어 5월 15~16일간 제1차 중국-아세안 무역협상위원회(TNC)를 개최하여 쌍방간 경제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개최하였음.

2. 중·아세안 고위관료회담의 주요 내용

- 중국과 아세안은 공동성명으로 회담 내용을 공포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중-아세안은 농업, 정보통신, 인력자원개발, 투자, 메콩강개발 등 5개 중점분야에 쌍방이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함.
 - o 특히 메콩강개발과 인력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중국-아세안 협력기금을 이용하기로 함.
 - o 또한 雲南省 昆明市에서 개최되는 ‘중국-아세안 무역, 투자 및 발전협력 토론회’(6월 6일~7일)에서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.
- 중국은 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, 베트남 등 아세안내 상대적인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을 지원함.
- 금년내 캄보디아에서 개최될 중-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대한 기본 구조를 마련할 예정임.
- o 기본 구조에는 ▲물류, 서비스,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, ▲자유무역지대 설립의 원칙, 모델, 범위 연구, ▲경제발전 격차에 따른 예외조항 등이 포함될 것임.
- 또한 중·아세안 쌍방은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이 이 지역의 경제발전 및 평화, 안정에 유익한 기능을 할 것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함.

3. 시사점: FTA와 중국 서남부 지역의 발전

□ 중국과 아세안간의 FTA 설립이 본격화 될 경우 중국 서남부지역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큼.

- 아세안으로 수출되는 화물의 절반정도가 이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이미 유럽 및 싱가포르 업체가 중국 서남부지역에 대한 투자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.

○ 덴마크 Maersk社, 싱가포르 PSA社는 이미 광서자치구 항구 건설에 지분을 참여하고 있음.

- 광서자치구는 경제개발의 정도가 다른 연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기는 하지만, 수심이 깊은 등 항구건설에 매우 적합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.

○ 자치구내 개발 가능한 항구가 총 21개이고, 이중 대형항구도 北海, 防城 등 5개에 달함.

○ 중국 정부는 서부개발전략에 따라 향후 매년 4,000만 톤의 화물이 광서 지역의 항구를 통해 수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(***)